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1.8% 오르며 연속 상승세

- 식품가격지수는 0.9% 하락하며 상승세 한풀 꺾여



지난 12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28.2포인트로 전월대비 2.3%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7.4%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주요 원유생산국의 수출 물량은 줄어든 반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평균 유제품 가격지수는 119포인트로 전년 대비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버터 및 분유 가격은 주요 원유생산국인 서유럽 국가와 오세아니아의 원유생산량이 감소해 수출 재고는 빠듯한 반면 수입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의 치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133.7포인트로 전월대비 0.9% 하락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23.1%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제품을 제외한 유지류, 곡물, 설탕 및 육류 가격이 떨어지며 가격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평균 식품가격지수는 125.7포인트로 전년 대비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1월 6일자 >

[낙농생산] 터키 낙농가, VR 헤드셋 활용 원유 생산량 증대

- 젖소 스트레스 완화로 일평균 원유생산량 5리터 증가 효과



수년전 러시아에서 원유생산량 증가를 위해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터키의 한 낙농가가 이에 영감을 받아 VR 헤드셋을 활용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180두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가는 최근 사료 및 건초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젖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등 생산비 부담은 줄이고 원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최근에는 젖소 두 마리에게 VR 헤드셋을 씌워 목초지 풍경을 보여주고 10일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원유생산량은 물론 원유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로 두 젖소의 일평균 원유생산량이 22리터에서 27리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농가는 헤드셋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dailysabah.com, 1월 6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